

SK하이닉스 ADR 상장 효과 SK스퀘어 재평가 기대 확산

나스닥 입성 앞두고 수요 몰려
7조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최대주주 지분가치 상승 주목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전망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ADR 상장을 계기로 7조원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 수요예측 공모에 글로벌 장기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몰렸다.

ADR은 10일 나스닥에서 임시 거래를 시작하며, 13일부터 정규 거래로 전환된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주목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 "ADR 상장은 1997년 10월 미국에 ADR 상장을 한 TSMC 사례와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ADR은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했고, 이 과정에서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전환 및 차익거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도 지난 달 유튜브 웹세미나 '반도체 시장 점검과 TIGER 반도체 ETF 투자전략'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ADR 상장을 통해 최소 7조원의 수급이 몰리고, 나스닥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관투자자와 패시브 자금의 SK하이닉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대표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46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의 기업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

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NAV)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 2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자산 가치 변동은 SK스퀘어의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과 함께 SK스퀘어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SK스퀘어는 반도체 밸류체인 내 SK하이닉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확장을 지속해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AI 메모리 혼풍에 부품업체 실적도 날개

삼성전기·LG이노텍, 실적개선 기대
AI 서버용 기판·MLCC 수요 확대

AI 메모리 호황이 부품업체에도 혼풍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기판과 적층 세라믹콘덴서(MLCC)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3819억원, 1537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9.3%, 1348.2% 늘어 수준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결하는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MLCC 등 고부가 부품 수요가 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MLCC 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가 최근 가격 인상 방침을 시사한 데 따라 업황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글로벌 MLCC 산업의 B/B(Book-to-Bill) 비율이 최근 1.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B 비율이 1을 넘으면 수주액이 출하액을 웃도는 것으로, 향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 삼성전기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고객의 FC-BGA 공급 확대 요청에 더해 2분기부터 신규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생산능력(캐파)을 웃도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45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장기 실적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LG이노텍은 기존 주력인 광학솔루션 사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사업은 애플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FC-BGA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판 사업도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기판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FC-BGA 매출이 올해 1400억원에서 2028년 1조1000억원, 2030년 2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2028년에는 약 8배, 2030년에는 약 16배 성장하는 셈이다. AI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근접한 데다 판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와 AI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선수금 지급과 설비투자 지원, 3~5년 장기 공급계약 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사는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부산과 세종, 베트남을 중심으로 FC-BGA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도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FC-BGA 양산라인 확대를 위해 구미사업장에 60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베트남 하이퐁에도 반도체 기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장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한은, 물가·부채·환율 리스크 경계
반도체 호조에 성장세 견조 흐름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배경으로 성장세 개선과 물가 압력,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제시했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승 한은 총재도 이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우선 경기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지역 긴장도 완화되면서 국내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전망



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 1.1%보다 크게 확대된 2.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통관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0.9%로 제시됐다.

문제는 물가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2월 2.0%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됐지만, 3월부터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상승해 6월에는 3.2%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가 이를 상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등 비용 충격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유인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이후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낮아지더라도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과 미 달러화 강세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최태원, 나스닥서 AI 메모리 가치 띄운다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 ADR 상장행사 참석
HBM 중심 성장전략 직접 설명
글로벌 AI 고객사 회동도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식에 참석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AI 메모리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상장식을 전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 속에서 기업가치 재평가와 AI 메모리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념행사에 관조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참석한다.

최 회장은 오프닝벨 세리머니와 투자자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메모리의 구조적 성장성과 고객 기반 확대를 앞세워 기업가치 재평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시장에 전달할 메시지는 ‘범용 메모리 기업’을 넘어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HBM은 물론 고객 맞춤형(커스텀) 메모리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켓(SOCAMM) 등을 앞세워 AI 인프라 핵심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식 전후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연쇄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AI 고객사 경영진과 만나 차세대 HBM과 SOCAMM, AI 데이터센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 CEO와 만나 HBM, SOCAMM, 낸드플래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황 CEO의 방한 당시에도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AI)의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HBM 공급과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스페이스X(AI)는 초대형 AI 클러스터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총수들의 미국행이 같은 시기에 이어진 점도 눈길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리는 선블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 잇달아 회동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AI 반도체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